KIWOOM DAILY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 미-이란 협상 기대감 속 유가 급락, 금리 하락 등으로 1%대 급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0일(수) 미국 증시는 매파적이었던 4월 FOMC 의사록에도, 트럼프의 "협상 최종 단계 돌입" 발언에 따른 휴전 기대감 속 WTI 4%대 약세, 미 10년물 금리 4.6%대 하회 등 유가 및 금리 불안이 진정된 영향에 힘입어, 엔비디아(+1.3%), 마이크론(+4.8%) 등 주도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다우 +1.3%, S&P500 +1.1%, 나스닥 +1.5%).

이번 4월 FOMC 의사록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필요 시 긴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지난 4월 회의는 매파적인 동결이었던 것으로 확인.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우려를 기반영해온 점에서 추가적인 가격 충격은 제한됐던 것으로 판단.

이에 더해 최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연준 정책 불확실성을 초래한 근본 배경은 미-이란 전쟁이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 전쟁 리스크 해소 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완화 -> 연준 긴축 전망 후퇴 -> 시장금리 안정 -> 매크로의 부정적인 주가 민감도 완화"의 루트가 형성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이런 측면에서 전일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이 최종단계에 돌입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사우디 외신 측에서는 최종 합의안이 곧 도출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종전, 수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안도 요인. 최종 협상을 앞두고 핵농축 우라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을 놓고 양국간 마찰은 벌어질 수 있기는 함. 다만,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리스크를 염려한 미국의 수습 의지는 높다는 점을 고려 시, 추후 중간중간 출현할 수 있는 매크로, 지정학 노이즈에 "주식 매도 + 현금 비중 확대"와 같은 보수적인 포지션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지양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 반등 소식에도 금리 및 환율 부담 속 삼성전자의 노조 협상을 둘러싼 혼선 등으로 장중 시세가 급변하는 변동성 장제를 연출하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0.9%, 코스닥 -2.6%)

금일에는 미-이란 협상 진전 기대감에 따른 미 10년물 금리 급등세 진정, 달러/원 환율 1,500원대 하회, 코스피200 야간선물 4.5%대 강세 등 상방 재료에 힘입어서 최근의 조정분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

또한 미국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분기 매출액(816억달러 vs 컨센 792억달러), GPM(75.0% vs 컨센 74.5%),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910억달러 +/- 2% vs 컨센 870억달러)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컨퍼런스콜에서도 빅테크 업체들의 CAEPX 확대, 베라루빈 3분기 생산 시작 등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

물론 현재 시간외에서 주가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매출 가이던스 미포함 문제 이외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선반영에 따른 셀온 물량 출회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 더 나아가, 전일 밤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 잠정 타결 소식으로 파업 리스크가 완화된 점도 금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시켜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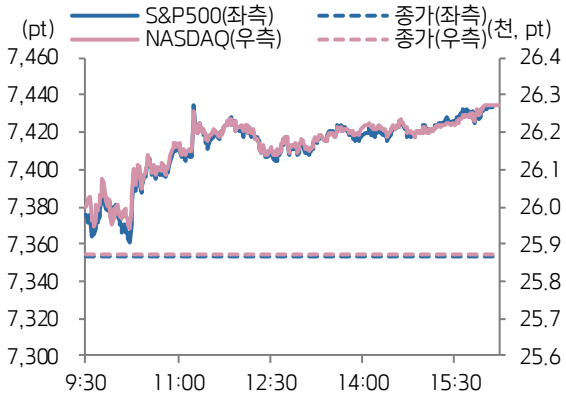
현재 코스피는 지난 5월 15일 장중 8,000pt 터치 이후 속락하면서 4거래일만에 고점대비 10.3% 조정을 맞은 상태. 그 가운데 미국 나스닥, 일본 닛케이 등 여타 국가가 고점대비 5% 내외 조정에 그쳤으며, 외국인의 연쇄 순매도(5월 이후 -38조원)까지 출현하다 보니, 상승 추세 훼손 여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

그러나 당사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 전망 part1: 하반기 금융시장의 세가지 시선〉에서 주장했듯이, 지금 국내 증시는 이익 증가율(연초 이후 +130%대)이 주가 상승률(연초 이후 +70%대)을 앞지르는 실적 장세에 있다는 점에 무게 중심을 잡고 갈 필요. 최근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됐던 매크로 불확실성도 미-이란 합의 근접 및 그에 따른 유가 약세 효과로 미국 금리 급등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 점도 안도 요인.

더 나아가, 최근 일련의 주가 조정으로 코스피의 선행 PER은 7배 중반 내외로 과거 경험칙상 매수 시 승률이 높았던 8.0배 레벨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 현재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가 추가 상향 없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과거 장기 평균 PER인 10.0배를 적용해보면, 코스피가 10,000pt 돌파 시나리오도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당사의 올해 연말까지 코스피 목표 지수는 10,000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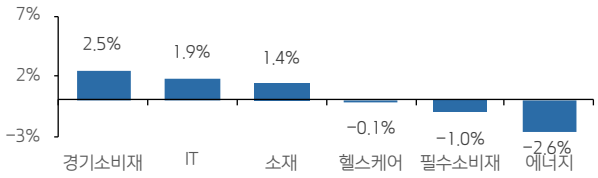
지금은 그간 폭등에 따른 과속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매크로 불확실성이 장중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시기인 것은 맞음. 하지만 선행 EPS(YoY, +276%)와 선행 ROE(+29.3%)가 동반 개선 중인 가운데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도 지속되는 등 매크로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랠리의 동력은 소진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처럼 지수 상방은 추가로 열려 있는 만큼, 현재의 변동성을 활용해 1) 반도체 등 기존 주도주, 2)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방산, 증권, 유통), 3) 연간 소외 업종 및 수급 빈집(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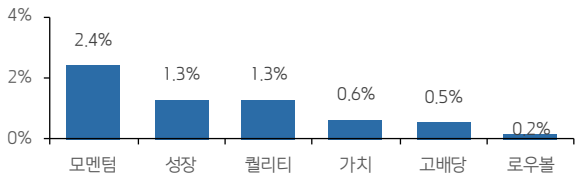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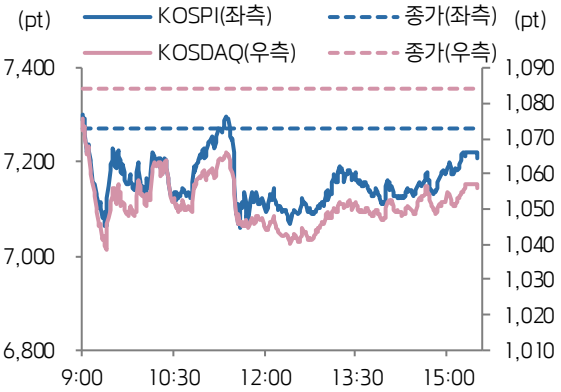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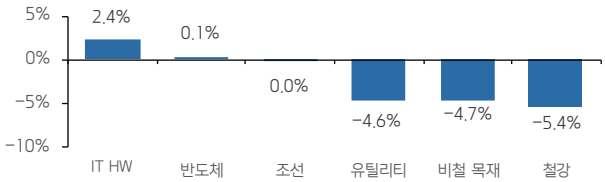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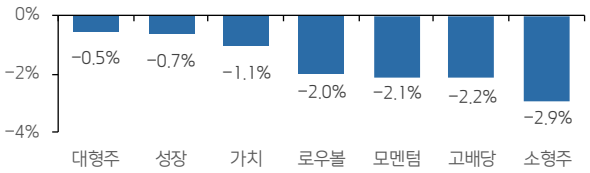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02.25	+1.1%	+11.18%	GM	76.14	+4.83%	-6.37%
마이크로소프트	421.06	+0.87%	-12.94%	일라이릴리	1,018.87	-0.25%	-5.19%
알파벳	388.91	+0.32%	+24.25%	월마트	130.85	-2.5%	+17.45%
메타	605.06	+0.41%	-8.34%	JP모건	301.98	+2.12%	-6.28%
아마존	265.01	+2.19%	+14.81%	엑손모빌	156.28	-3.86%	+29.87%
테슬라	417.26	+3.25%	-7.22%	셰브론	191.33	-3%	+25.54%
엔비디아	223.47	+1.3%	+19.82%	제너럴일릭트릭	130.85	-2.5%	+17.4%
브로드컴	417.76	+1.63%	+20.7%	캐터필러	872.56	+1.44%	+52.31%
AMD	447.58	+8.1%	+108.99%	보잉	222.20	+3.34%	+2.34%
마이크론	731.99	+4.76%	+156.47%	넥스트에라	88.27	-2%	+10%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7,208.95	-0.86%	+71.06%	USD/KRW	1,496.70	-0.8%	+3.97%
코스피200	1,125.51	-0.61%	+85.73%	달러 지수	99.11	-0.22%	+0.8%
코스닥	1,056.07	-2.61%	+14.11%	EUR/USD	1.16	+0.16%	-1.04%
코스닥150	1,773.46	-2.76%	+14.61%	USD/CNH	6.80	-0.22%	-2.49%
S&P500	7,432.97	+1.08%	+8.58%	USD/JPY	158.92	-0.09%	+1.41%
NASDAQ	26,270.36	+1.54%	+13.03%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0,009.35	+1.31%	+4.05%	국고채 3년	3.758	+0.8bp	+80.7bp
VIX	17.44	-3.43%	+16.66%	국고채 10년	4.195	-1bp	+81bp
러셀2000	2,817.37	+2.56%	+13.52%	미국 국채 2년	4.055	-6.3bp	+58.2bp

필라. 반도체	11,813.29	+4.49%	+66.78%	미국 국채 10년	4.586	-8.1bp	+41.9bp
다우 운송	20,619.70	+2.27%	+18.8%	미국 국채 30년	5.123	-5.8bp	+27.9bp
상해종합	4,162.19	-0.18%	+4.87%	독일 국채 10년	3.096	-9.7bp	+24.1bp
항셍 H	8,605.13	-0.4%	-3.46%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5,318.39	+0.16%	-11.62%	WTI	98.26	-5.66%	+72.27%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05.02	-5.63%	+72.59%
Eurostoxx50	5,976.07	+2.13%	+3.19%	금	4,535.30	+0.53%	+2.91%
MSCI 전세계 지수	1,101.65	+0.9%	+8.58%	은	75.85	+1.37%	+7.43%
MSCI DM 지수	4,766.67	+1.04%	+7.59%	구리	629.05	+2.04%	+10.71%
MSCI EM 지수	1,637.34	-0.09%	+16.59%	BDI	3,054.00	-1.23%	+62.71%
MSCI 한국 ETF	180.11	+3.5%	+85.26%	옥수수	465.75	-2%	+2.48%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60.50	-1.01%	+24.33%
비트코인	77,661.43	+0.91%	-11.39%	대두	1,199.75	-0.81%	+11.68%
이더리움	2,134.13	+0.81%	-28.33%	커피	268.30	-0.68%	-17.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5월 2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